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12월 교육 내용04



1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07

어린이 QT God's Time08



12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19

어린이 QT God's Time20



1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32



1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워드 포토 54



12월 추천도서 56





12월 교육내용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암송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첫째주♥

“70년의 은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재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둘째주♥

“무조건적인 사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셋째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9-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넷째주♥

“끝까지 달려요”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행전 20:24-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실천내용

1. 아무 조건없이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요.
2. 1년을 마무리하며, 2016년도 예수님을 향해 달리기로 결단해요.
3. 위드 큐티하는 시간을 정하여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해요.



12월 첫째주
2015년 12월 6일~12일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 성경 이야기 : 70년의 은혜 ▷로마서 12:1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1절)

②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것 일까요?(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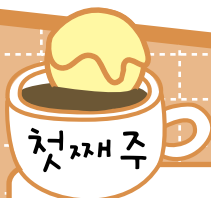
③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교육활동 - “우리 교회를 꿈꾸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함께 나누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70년의 은혜 ▷로마서 12:1

영락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영락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고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Q 1 영락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 왔을까요?



Pray 영락교회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요.

누가복음 16:19-26 “부자와 나사로”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말씀 속으로★

1.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서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갈 수 없게 가운데에 있는 구렁텅이를 그려보세요. (26절)



★삶 속으로★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 없이 즐겁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 둘은 죽고난 뒤에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짙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옮겨 다닐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벌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반면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부
+
모
니
ם
과
하
님
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27-31 “부자의 부탁”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0.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본문 말씀을 보며, 빈 칸을 채워보세요 (29절)

'그들에게는 와
 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 삶 속으로 ★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부탁은 들어 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들어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1-4 “나의 태도”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 속으로★

1.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1절)



2. 만약 친구가 하루에 일곱 번 잘못을 하고, 일곱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삶 속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잘못된 태도나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거나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태도와 행동을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죄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저의 죄를 다 용서해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해주세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 : 2015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누가복음 17:5-6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5.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사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5절)

2. 본문 말씀을 보며, 빈 칸을 채워보세요. (6절)

너희에게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삶 속으로 ★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땅에 심겨있는 콩나무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워드

WIT

12월 둘째주
2015년 12월 13일~19일





무조건적인 사랑

주제
자재 주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 성경 이야기 : 무조건적인 사랑 ▷요한복음 13:1-11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저녁 먹던 중에 무엇을 하셨나요?(4-5절)
- ②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8절)
- ③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나요?(9절)
내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 교육활동 - “그래도 널 사랑해” 고백하기

-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적은 메모지를 모두 모으고 그 위에 모두의 손을 모아서
“OO야! 그래도 널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 암송구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무조건적인 사랑 ▷요한복음 13:1-11

예수님은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착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조건없이 제자들을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사랑해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아무 조건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아요.



Q 1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Pray 아무 조건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 모두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17:7-10 “종의 태도”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의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말씀 속으로★

1. 다음 중 주인이 종에게 할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7,8절)
 - ①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 ②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 ③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 ④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2. 본문 말씀을 보며, 빈 칸을 채워보세요 (10절)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	--	--	--	--

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삶 속으로★

좋은 주인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종'이에요. 상을 받으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늘 하나님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본
모
임과
함
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12-19 “감사를 주님께”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
(16절)

사람


★ 삶 속으로 ★

열 명의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이 치료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당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단해주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나병환자들은 치료하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고,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사람 단 한명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매우 칭찬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20-21 “하나님의 나라”

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21절)

"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에 있다 "


★ 삶 속으로 ★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24.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말씀 속으로★

1. 말씀을 보며 아래 빈 칸을 채워보세요.(24절)

마치 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삶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오실 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만 아세요. 말씀에서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확한 날을 정해서 말해주고,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예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따라 다니거나,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유크드



12월 셋째주
2015년 12월 20일~26일



memory time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

새 시작 주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 성경 이야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 ▷ 요한복음 15:9-17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 2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12절)

★ 교육활동 - “예수님 나무에 맺히는 열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예요.
가지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각각 맺어야 할 열매를 적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 암송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9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9-17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며 그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요.



Q 1 우리 가족이 올 한해동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붙어있는 가지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족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누가복음 17:26-30 “믿음으로 살아요”

26.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28.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29.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 속으로★

1.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노 아 시 대 27절		
롯 시 대 29절		

★삶 속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들은 결국 홍수와, 불과 유황에 심판을 당했어요.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에 바빠요.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31-37 “세상의 마지막”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5.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6. (없음)

37.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32절)



★삶 속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시대에 불과 유향의 심판을 찾아왔을 때도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때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해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소중한 물건이 집 안에 있어도 꺼내려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1-5 “응답하시는 하나님”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2.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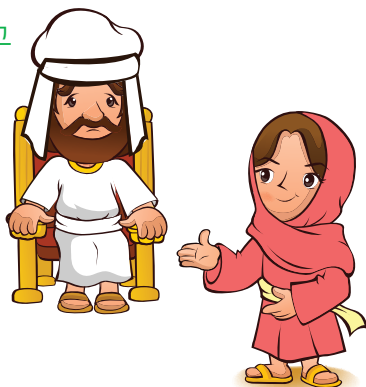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며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를 하나 말씀하셨다.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주셨어요.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끈질기게 부탁하는 여자의 부탁을 계속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악한 재판장은 결국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재판장같이 부탁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악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악한 재판장도 간청을 들어주는데,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응답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와 부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6-8 “믿음으로 기도해요”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7.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제목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삶 속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분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예요. 우리가 구한대로 무조건 다주시는 분이시기 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분이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기도제목이 있다면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늘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연약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유크드



12월 넷째주
2015년 12월 27일~2016년 1월 2일



Memory time



끝까지 달려요

네
사람
주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25

♥ 성경이야기 끝까지 달려요 ▷고린도전서 9:24-27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과 비교하여 말해주었나요?(24절)

② 믿음의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5절)

★ 교육활동

○ 2학년 친구들은 내년부터 예배드리게 될 초등부 예배실을 방문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 암송구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25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끝까지 달려요. ▷고린도전서 9:24-27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멋진 믿음의 달리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시며 인도해주세요.
2016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Q 1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Pray 2016년에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누가복음 18:9-14 “기도의 자세”

9.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본문 말씀을 읽고 맞는 것끼리 연결해보세요.

바리새인 ·



·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냄

· 남들같이 죄짓지 않음을 과시

· 이레에 두 번씩 금식

세 리 ·



· 가슴을 치며 자비 구함

· 소독의 십일조

2. 말씀을 보며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14절)

누구든지 자기를

사람은

지고,

자기를

사람은

질 것이다."

★ 삶 속으로 ★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며 교만한 태도로 기도했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부 모님과
함께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15-17 “어린이처럼”

15.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16.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16절)

--	--	--	--

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	--	--	--

--	--

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 삶 속으로 ★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늘 저를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18-25 “어떤 부자 이야기”

18.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20.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1.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24.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 가는 것이 더 쉽다."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25점)

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②

③

★ 삶 속으로 ★

어떤 부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 질문했어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지도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부자 지도자는 근심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저도 부자 지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8.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색칠해보고, 나타나는 글자를 아래에 적어보세요.

게임	돈	게임	미움	다툼	시기	오락	질투	죄	오락	미움	게임	다툼	시기
오락	다툼	하나님	오락	돈	사랑	죄	돈	하나님	감사	말씀	죄	말씀	미움
죄	질투	예수님	죄	죄	감사	미움	오락	게임	다툼	성경	미움	성경	다툼
미움	찬양	오락	말씀	미움	말씀	다툼	죄	찬양	감사	기도	질투	기도	찬양
다툼	예배	죄	성경	오락	성경	찬양	미움	예수님	게임	다툼	돈	감사	죄
시기	은혜	미움	기도	죄	기도	오락	다툼	말씀	하나님	사랑	오락	은혜	미움
돈	오락	죄	오락	미움	감사	죄	죄	오락	미움	믿음	소망	돈	오락
미움	죄	미움	죄	다툼	은혜	미움	미움	죄	예배	돈	오락	찬양	죄
죄	미움	다툼	미움	거짓	찬양	게임	다툼	미움	찬양	죄	시기	은혜	미움
다툼	다툼	시기	미움	죄	미움	돈	시기	돈	거짓	기도	사랑	거짓	죄

하나님을 가장

할래요!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형제나 부모님, 자녀들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 잘 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단다.”

친구를 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거야”라고 이야기 한 후에 부모님이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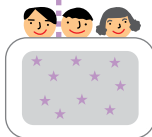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아이를 꼬옥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가 잠자리에 들 때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시며
“○○아 사랑해.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꼭 안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가 우리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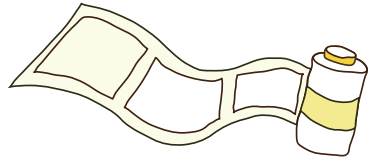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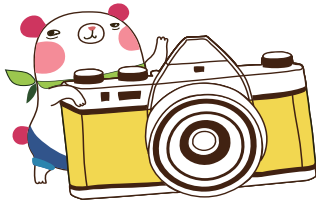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자고,
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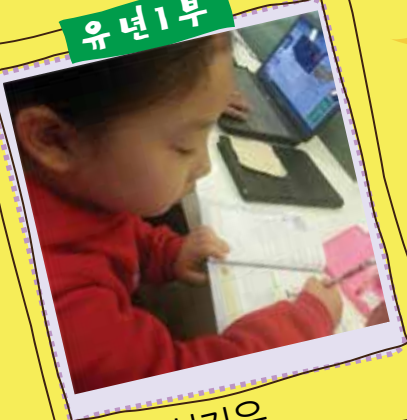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아이를 꼬옥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유니 포토



유년1부



1-1 심지유

유년1부



1-3 문준혁

유년1부



찬양 2-2 최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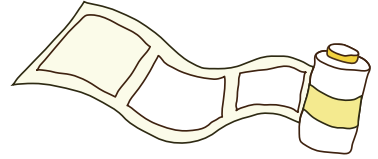
유년2부



1-1 금지호



유년의 PHOTO



유년2부



1-1 김지우

유년2부



1-3 가은혜

유년2부



1-6 이준우

유년부



2-9 박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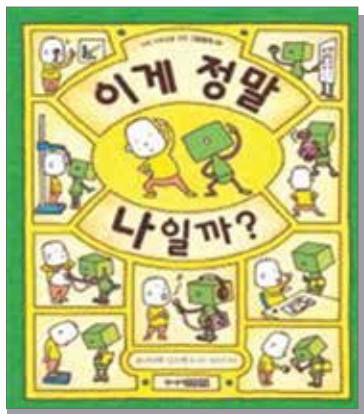


12월

제목 : 이게 정말 나일까?

글&그림: 요시타케 신스케 / 옮긴이: 김소연

출판 : 주니어김영사



자기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어른들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과 이름, 가족까지 소개하는 일도 드물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첫 사회인 학교는 나와 가족, 단짝친구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곳입니다. 즉 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에 대해 생각하며 남이 나와 다름을 처음 인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매번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갖게 되지요. 이럴 때 재미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면 한층 자신 있고 여유 있게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